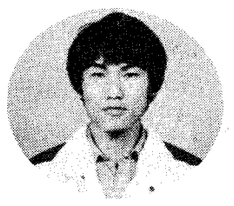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대학주보에는 경희 학우의 움직임이 있다
따스한 삶이 담긴 진실한 모습 보고파

가끔 집회때면 한 몫 단단히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대학주보 신문 뭉치이다. 굳이 땅바닥에 깔고 앉으라며 권할 필요도 없이, 신문 속의 내용은 무시당한채, 수난을 겪는 것이다.



우리들이 휴지처럼 팽개치는 대학주보 속에는 경희 이 만 학우의 움직이는 모습과 갈고 다듬어진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대학주보가 어느새 1천호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동양에서는 '百'이라는 의미 자체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느껴진다.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다가오는 느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百'의 열 배인 '千'의 의미는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대학주보는 모든 학우들에게, 보다 원숙해진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현대인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매체일 것이다. 좁게는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크게는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TV나 신문을 본다. 현재는 영상매체에 그 텃밭을 많이 내주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여론 조성의 핵심은 신문이다. 이러한 신문은 대중화되어 동네에서도 간이 신문을 발행하기도 한다.

경희대학교 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주보에 두 가지 부탁의 말을 하고 싶다.

우선은 신문 지상에서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물론 독자 투고란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지만 때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대학내의 쟁점화된 사안은 보도와 해설만 붙일 것이 아니라, 의견의 대립을 하는 양자간의 목소리를 동시에 실어 학우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대학내에서도 소외되는 학우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향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은 약간 지나친 것일까.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논리적인 글의 게재나, 단순한 기사뿐만 아니라 따스한 삶의 모습이 진실하게 담긴 기사를 읽고 싶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 풍조에 익숙해진 현실 사회를 닮아가는 대학인에게 따끔한 한 마디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무튼 같은 경희인으로서 우리들의 신문 대학주보의 1천호 발행을 거듭 축하하며, 보다 날카롭고, 매서우며, 따스한 신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 건 훈
(서반어·4)

20년전 부터 받아보던 대학주보
여론 유도보다는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되야

20년전, 대학주보를 처음 대하고, 대학주보 제작에 동참하고 싶었으나, 동참치 못하여 무척 아쉬웠었다.

학생때는 손에 잡히면 읽고 나와 관련된 기사가 있을때만 일부러 찾아 읽었다. 지금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면서, 사회의 일간지보다 내 생활에 더 밀착되어 있다. 월요일 출근때면 찾아 읽게 되고, 방학이나 시험기간중에 휴간하게 되면 무척 섭섭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많은 변동속에 우리도 많이 변했다. 정신적·학문적 풍요보다 경제적 풍요가 앞선 학생들을 보면서,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학생들과의 개인 상담을 통하여 한 개인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학생들 전체의 사고와 의식의 방향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더욱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언론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유도하지 말고,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다운 학생의 위치에서 설수 있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학원의 분위기가 지성과 예도가 풍기는 학생의 면목을 나타내도록 노력하고,

셋째, 분야별로 학생과 사회, 경제적 관심사의 지상토론을 특집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유익한 소식과 가치있는 정보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넷째, 1985년 발간된 대학주보 총서 "상황인식과 우상파괴"와 같은 책자의 계속적인 출간을 희망한다.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걸으며, 질높은 내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김 순 규
(보건소)

대학신문 참 언론의 기수로
대학과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매체돼야

대학주보의 1천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많은 기자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선배 도깝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결과이며 전국대학의 선봉에 서서 참 언론의 기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학내구성원을 비롯해서 모든 대학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정을 받는 매체가 었음은 기자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주보 기자가족 여러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경희대학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무관심하고 방만한다면 진정 경희학원 민주화가 역행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최근에 현 기자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소신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선배님들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했고 사회전체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선배들께서는 꿋꿋이 경희학원의 민주화를 부끄럼없이 외치고 기자도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현 기자들께서는 선배들의 열의와 정성을 본받아 참 민주 언론으로서 노력하십시오. 또한 언론의 책임인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여 작게는 학내의 곳곳의 진실을 밝히며 넓게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대학주보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주보기자를 일컬어 '도깝이'라고 칭하는데, 저에게도 '도깝이'란 별명이 붙은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학주보 1천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대하며 다시금 축하합니다.

장 은 석
(교직원)

대학주보 1천호발행, 경희의 기쁨
폭넓은 안목, 날카로운 비판 필요

한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밉든 곱든 그 대학의 얼굴이다. 대학 신문의 수준은 기사를 기획·취재·편집하는 신문사 기자들만의 수준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대학주보 지령 1천호 발행은 우리 대학의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대학주보 1천호 발행은 우리 대학의 연륜과 역량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대학주보 제작진들에게 입에 발린 상투적인 축하인사만 되풀이할 수는 없다. 신문 발행의 양적인 측면에만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훼손하는 우둔한 행위이다.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1천호 발행이라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대학주보 제작진들에게 우리는 그 만큼의 깊이있는 식견과 폭넓은 안목을 정확하고 날카로운 펜으로 옮겨주기 바라는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이다. 그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심판난 현실사회주의, 우리의 대안이기엔 너무나 부도덕한 자본주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역사는 민중의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에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주보는 이 '전환'의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실패'와 '혼돈'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갈무리해야 한다. 새로운 희망은 '원칙'을 포기하고 방황하거나, 현실감각을 상실한 채 뻣뻣이 굳어있는 자세로는 만들어지기 힘들다. 대학주보는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민중의 큰뜻을 져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實事求是의 지혜와 실천의 자세로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환의 시대, 지령1천호를 발행하는 우리의 대학주보가 實事求是의 지혜와 실천을 싣고 민중이 열망하는 희망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리는 백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 도 형
(국문·3)

사회의 공기(公器) 되야 할 신문

5월 주제 '신 문'

이 광 재
(정경대교수·신방)

신문은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논리적인 논평 날카로운 비판으로 타 매체와 경쟁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면이 늘어남에 따라 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 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신문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현대 민주사회에 필요한 폭 넓은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신문의 다양화와 늘어난 지면에 따른 언론경쟁의 심화는 상업성과 공공성이라는 신문 본래의 상반된 특성중 상업성에만 치중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였다. 신문은 상품이고 언론사는 기업이라고 볼때 이윤의 극대화와 수용자(독자)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것을 그저 나무랄 수 만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독자의 구미에만 맞춰 선정주의에 빠지게 되고, 쉽게 독자와 영합하게 된다. 즉, 신문본래의 사명인 공공성에 소홀해 지기쉽다.

지면 수의 증가에 따른 또하나의 문제점은 신문의 잡지화 경향을 들수 있다. 뉴스보도, 해설, 논평등이 생명인 신문에 특정 연예인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나 이미 퇴색되어 버린 단편적인 읽을 거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게 됨으로써 신문고유의 특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문의 당면한 과제중 하나가 바로 전파매체의 확산에 따른 신문독자의 상대적 감소이다. 옛부터 신문이 최대의 장점이었던 속보성마저 전파매체의 발달로 희미해져 버렸다. 속보성에 있어서 전파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 장점이 희미해져 버렸다. 속보성에 있어서 전파매체와 경쟁을 하려 한다면 신문은 커다란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속보성에 얽매이다 보면 오보 발생과 해설, 논평의 미흡으로 빠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속보성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더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논리적인 논평, 날카로운 비판으로써 타 매체와 경쟁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은 각종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때마다 그 매체들을 위협한 존재로 인식하며 몸을 움츠려 왔다. 하지만 여러 매체의 등장속에서 신문 고유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것을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치열한 언론매체 경영환경속에서 타 매체를 신문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 신문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 현대인은 저녁시간보다는 아침시간에 신문을 즐겨 읽는다. 타 매체와의 접촉이 많은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시간이 신문을 읽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따라서 석간 지향적인 신문보다는 조간지향적인 신문을 제작하는 것도 신문사가 인지해야 할 시대변화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신문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신문은 항상 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의 독자는 과거의 피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기사 하나 하나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는 능동적인 독자이다. 상업화에 치우친 선정주의, 지나친 속보성 경쟁에 따른 오보 등의 심화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불신감을 점 점 가중시킨다. 이제 신문은 그야말로 사회의 공기(公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문화 창달의 파수꾼
대학운영의 비판적 제안 부족해

'경희의료원 20년사'를 편찬하면서 지난 여름 내내 나는 대학주보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였다. 평소에도 대학문화 창달의 기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오던 터 였지만 의료원 20년사를 엮으면서 '역사기록'의 일매체로서 대학주보가 갖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재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63년부터 90년까지의 의료원에 관련된 기사뿐 아니라 '경희'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스크랩하여 요약정리하고 나아가 두권의 자료집을 묶기에 이르렀다.

십여종에 이른 외부 전문지와 일간지등을 뒤져서도 찾지 못한 내용과 모호한 사건을 확인하는데 대학주보의 공은 실로 컸다. 아마 대학주보의 현장감 넘치는 기사들이 아니었으면 경희 20년사의 출간은 훨씬 더디어졌을 것이다.

20년사를 기획.집필한 사람으로 지령 1천호를 맞은 대학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되돌아보면 대학주보는 학창시절이 남겨둔 추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의시간이 끝나면 발길은 으레 대학주보로 향했고, 덕분에 '독자부장'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그런 인연들로 쓰기 시작한 글로 급기야는 제적에까지 이르게 되긴했지만 돌아보면 '대학주보와의 만남'이 있었기에 그 시절은 마냥 아름답다.

진정으로 대학주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못내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말해두고자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류에 맞추어 대학주보의 내용 또한 많이 바뀌었다. 그 변화상을 줄여야하면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나 많이 가벼워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칠어지고 허황된 부분이 많아졌다. 촛점도 흐려 보인다. 생경한 언어가 지배적인 젊은 강사들의 힘찬(?) 글들은 많이 보여도 소장교수들의 정치(精緻)하고 무게있는 글들을 대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국면에 대해 때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 대학의 움직임에 대한 심층뉴스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제안을 담은 기획기사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주보역사는 경희대학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학주보는 대학의 언론이다. 언론은 그 속성상 자유를 생명으로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오늘의 경희대학이 갖는 모습의 상당부분에 대학주보의 역할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1천호의 지령을 넘어선 이제부터라도 대학주보는 좀 더 본질적인 경희의 발전과 대학수준의 고양(高揚)을 위하여 학생, 교수, 직원, 학교당국등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궁구(窮究)하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 일 출
(의료원·기획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①
럭키 제4세대항생제 개발편

「축」 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脫
固·定·觀·念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항생제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제 4 세대 세파계항생제 분자구조도
세파계 항생제는 6개의 계열군으로 구분되는 항생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항생제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우수한 약효를 지녀 전체 항생제 시장의 57%인 약 1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다. 럭키의 이번 제4세대 항생제 기술은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인 영국 그락소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들임으로써, 세계 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은 물론 선진국에 종속화이었던 신물질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의 기술을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개가로 평가받고 있다.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창조적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열악한 신물질 연구환경 속에서 단 6명의 인원으로 개발 성공한 제4세대 항생제—
불가능의 벽을 깨려는 도전과 개척의지,
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자랑스런 쾌거입니다.

럭키 신규 세파계 항생제 개발팀장 김용주박사
"'일당백'의 우수한 두뇌도 두뇌지만 서로의 강한 개성을 한데 묶어준 연구 분위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에 들어가기 전,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특히 강조해온 김용주 박사(36)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팀 분위기를 위해 힘쓰는 팀장이지만, 그 스스로는 신물질 연구를 위해 사흘 밤낮을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고집과 침묵의 연구광이기도 하다.

럭키금성